"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하늘소리

2010년 7 / 8 월

제167호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www.chunsungwon.or.kr

“白頭山에 올라”



대전원명학교 교사_ **장 세 현**

民族(민족)의 靈山(영산) 白頭山(백두산)이여!

오늘에서야 나 여기 숨가쁘게 올라
감격에 겨워 목청 높여 그대 이름 부르노라.

우리 땅 아닌 異域萬里(이역만리) 돌고 돌아
남의 땅 밟고, 제 이름 아닌 長白(장백)이란 이름의 팻말 따라
안개와 구름 밀치고 깊은 설움으로
여기 白頭의 정수리에서 무릎 꿇고 바라본다.

오천년 배달, 단군 할아범이
박달나무 깃대를 꽂고
開天(개천)의 둥지를 튼
靈(영)깊은 겨레의 聖山(성산).

찬란한 弘益(홍익) 왕조의 꿈은 아련한 傳說(전설)로 전해 오고
저 멀리 두눈으론 다 담을 수 없는 廣闊(광활)한 만주 벌판
廣開土(광개토)대왕과 고구려 軍兵(군병)들의
勇猛(용맹)스런 함성소리, 말발굽 소리
咫尺(지척)에서 들리는 듯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구나.

天池(천지)는 痛恨(통한)의 부끄러운 歷史(역사)를 아는 듯
초례를 치르는 새색시처럼
연신 낯가림하며 길손을 반기련만
그 모습 너무나 처연하여 사뭇 눈물겹구나.

검푸른 수면 위에 이 목숨 던져도 아깝지 않을
神靈(신령)스런 靈氣(영기)어린 天池여!

두손 모아 비나니
原始(원시)의 純粹(순수)한 甘露水(감로수)로
어머니 젖줄같은 生命水(생명수)로

우매함으로 더렵혀진 부끄러운 이 百姓(백성)
반쪽으로 불구된 상처난 몸
자애로운 어머니 손길로 말끔히 닦아주렴.

그리하여,
두눈 부라리며 쌈박질 하던 못난 얼굴들,
함박꽃 같은 뽀얀 얼굴로 마주 바라보고
손에 손잡고 어깨춤 추는 그날 오게 해다오.

歡喜(환희)의 그날, 속히 오게 해다오.

– 2010년 7월 20일 백두산에서





| 표지설명 | **민족의 혼을 찾아 2010 '백두산트레킹'**
트레킹 中 백두산 천지 앞에서
(2010.7.19~7.23)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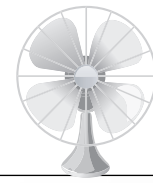
02 **짧은글 긴여운** • 白頭山에 올라
03 **머릿글** • 여름
04-05 **특집** • 민족의 혼을 찾아 2010 “백두산 트레킹”
06 **테마가 있는 이야기** • 너와 같은 내가 사는 세상
07 **사랑받가꾸기** • 사소한 인연이 소소한 사랑으로
08-09 **소곤소곤** • 소곤소곤 우리집 사는 이야기
10 **행사안내 및 퍼즐** • 행사안내/지난주정답/알쏭달쏭 퍼즐
11 **문화가 산책** • 렛미인
12-13 **도움과 나눔을 실천 하신 분들**
14-15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들**
16 **실천하는사랑** • 후원회안내

하늘소리 2010년 7/8월호 ■통권 167호 ■2010년 8월 1일 발행
http://www.chunsungwon.or.kr

■**발행인** 윤진순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천성원_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2
■**TEL** 042) 620-8601 ■**FAX** 042) 621-4425
■**편집** 하늘소리 편집부 ■**디자인** 우성인쇄사 042) 623-4870



여 름





대전한일병원 알코올치료센터 센터장_ **강 상 범**

더운 여름을 이기는 많은 방법이 있다. 냉방기기도 좋고 피서도 좋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있는 그대로 충고하지 않고, 내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더운지도 모르게 여름이 지나간다.

한달에 한번씩 광주에서 대전까지 올라오는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한지 4년 정도 되는 회복자가 있다.

7월초에 연락이 뜸해서 연락했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았었다.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왔다. 사실은 그때 협심증으로 입원 중이었단다. 할 이야기가 많다며 대전으로 올라오신다고 했다.

광주에서 제일가는 뷔페식 초밥집을 운영하시는데, 길건너에 새로운 초밥집이 개업을 했다고 한다.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것을 신경 쓰는 자신을 감추려고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날 밤 흉통이 생겼는데 보통때와 다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응급실로 갔다고 한다. 여동생이 아는 심장전문의가 새벽인데도 나오셔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심장개복술을 할지고 모른다고 했는데 다행히 혈관에 풍선을 넣어서 관상동맥을 넓히는 시술을 했다고 한다. 그날 밤 흉통을 무시하고 그냥 잤다면, 당시에 대학병원으로 빨리 옮기지 못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참 천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광주에서 대전까지 올라오신 이유는 부인과 직원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풀고 싶어서였다.

입원 중에 부인에게 짜증을 자주 내셨다고 한다. 부인밖에는 짜증낼 사람이 없었으리라.

시술이 끝나고 이제 죽지 않는다는 안심이 될 무렵, 병원직원이 치료비 계산을 하러 병실에 왔다.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부인이 병원직원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자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느낌이 묘하셨단다.

누가 당신보고 돈을 내라고 했냐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는 생각이 들었단다.

퇴원해서도 아픈 자신에게 자신이라면 그렇게 안할텐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짜증을 내더란다. 충분히 부인에 대한 섭섭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부인도 힘들었을 거란 이야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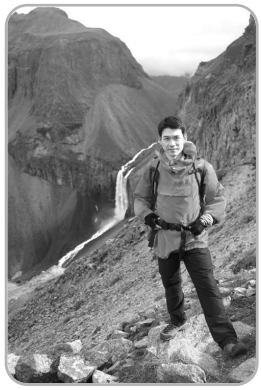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심장시술을 하는데 여동생처럼 의사를 알아서 서둘 수도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나 걱정하고, 남편에게 짜증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들 때,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인의 입장을 이해했다.

직원들에게도 다른 집보다 잘해주었는데, 자신이 아픈데도 자신의 몫은 챙기는 모습이 서운했다고 한다. 충분히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경쟁업체가 생겼는데도, 자신이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식당이 잘 돌아가게 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

올라오기를 잘 했다고 하며 내려가시는 모습에서, 누군가와 자신의 어려움을 상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득 중이 제머리 못 깍듯이, 나의 아래와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약간은 시원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 산줄기의 시작 백두대간... 백두산 등정



7월 19일 새벽 4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42명이 차에 올랐다. 인천공항을 향하여 차는 달리고 있지만 모두의 마음은 벌써 우리 민족의 정기인 백두산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을 위한 수속을 마치고 중국 장춘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시간의 짧은 비행이지만 여전히 긴장된 모습들로 가득하다. 드디어 중국의 장춘공항. 한국과의 시차는 같은 경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정해놓아 한 시간이 늦다. 공항에서 현지 가이드와 만나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백두산을 향해 서파로 이동하였다. 장장 6시간동안 버스로 이동하는데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지루함이 함께했다. 형혜산장이라하는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비행기와 버스로 하루종일 이동한터라 피곤했는지 첫날은 백두산트레킹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7월 20일 둘째날.



조식 후 백두산 종주를 위해 일찍이 채비를 하여 서파산문으로 향했다.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삼사십분을 달려서야 끝이 보이지않는 계단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1300여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천지를 볼 수 있다는 말에 힘껏 발걸음을 디뎠다. 5호경계비가 있는 천지에 올라보니 심장이 요동을 친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서 우리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오르고 천지를 감상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계비를 기점으로 조선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언젠가는 밟아보아야 할 대한민국의 국토. 북한땅을 중국을 통해서 밟아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감상에 젖어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산행을 시작하였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백두산의 날씨가 하루에 백두번도 넘게 변한다하여 백두산이라고도 한다. 등정하는 동안에도 날씨가 변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경사가 급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행길이었다. 청석봉을 거쳐 백두산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해발 2,691m인 백운봉에 올랐다. 천지는 안개속에 숨었다 나오기를 반복하였다. 정상인 백운봉에서 숨을 돌리고거센 바람을 맞으며 추위에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점심식사 중 후미에 뒤따른 팀이 힘들게 도착하여 격려의 박수도 아끼지 않았다. 쉼도 잠깐 시간안에 하산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아름다운 광경이 곳곳에 있어 희열과 감탄으로 고행의 길을 이겨내고 있었다. 녹명봉과 용문봉을 지나 장백폭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능선에서 바라본 장백폭포의 위엄은 실로 대단했다. 천지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굉음을 내며 아래로 떨어져 거대한 물안개를 만들고 있다. 다음날 짚차로 이동하여 그 장엄한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니 기대가 된다. 7시간 정도의 산행으로 모두가 지쳐서 표정들이 어두웠지만 소천지를 향해 이를 악물고 하산하면서 그 아름다운 경관과 위엄에 탄성을 지으며 마지막 힘을 다했다. 소천지에



도착하여 대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여 30분이 지나자 모든대원들이 모였다. 무사히 백두산트레킹을 마친 모두에게 큰 박수와 함께 셔틀버스에 올라 호텔로 향했다.

7월 21일 셋째날.

여유있게 시작한 오늘은 짚차를 이용하여 천문봉에 오르는 것이다. 북파산문으로 이동하여 짚차에 올랐다. 천문봉까지 꼬불꼬불한 도로를 짚차는 거침없이 내달렸다. 끼끼끽~ 타이어 소리를 내며 달려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중국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했구나"라는 생각도 해본다. 드디어 천문봉에 올랐다. 역시나 날씨는 비와 함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천지에 오르는 순간 와~ 함성소리가 울린다. 천문봉에 올라 천지가 열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셔터를 눌러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천지를 뒤로 하고 짚차를 타고 내려와 장백폭포로 향했다. 온천지대를 두고 있는 장백폭포는 지금까지 같은 양의 물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니 다시한번 천지의 거대함을 다시한번 알 수 있었다. 장백폭포에서 내려와 온천을 이루고 있는 유황온천지대를 찾아 온천욕을 하여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7월 22일 넷째날.

백두산의 아쉬움을 남긴채 우리는 동포들이 살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향했다. 용정시에 다다르니 해란강을 끼고 비암산정상에 독립운동의 혼이 담겨져 있는 일송정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넋을 기리는 마음으로 선구자를 합창하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윤동주님의 학창 시절을 볼수 있었던 대성중학교를 기념관으로 꾸며놓아 그때의 시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발걸음을 도문시로 이동하여 두만강접경지대로 향했다. 두만강에서 배를 타고 대한민국 국토인 북한땅을 바라보니 마음이 찡해왔다. 언제쯤에나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길시로 이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달래 광장과 많은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은 어설픈 한국말로, 또는 중국말로 떠드는 모습은 어딜가나 같은 모습인 것 같다.



7월 23일 다섯째날.

모두가 고향의 향수를 느낄 때가되니 벌써 여행의 마지막날이다.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들이 차분해 보였다. 연길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수속을 하여 여행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현지 가이드와 아쉬움의 인사를 나누고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12시10분행 비행기에 올랐다. 구름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대한민국 국토인 북한을 거쳐 백두산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취재/정리_ 자강의집 사회복지사_ **송 영 범**

너와 같은 내가 사는 세상



자강의집에서 만드는 여름추억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거리를 안식처 삼아 지내는 사람들을 노숙인 다르게는 부랑인이라고도 한다. 거리에서 노숙하며 지내는 이들의 삶이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였다. 한 가정의 아버지,어머니로써 또한 산업의 일꾼으로, 기업의 CEO로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였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몰리는 처지가 되어 노숙을 시작해 그 생활에 안주해버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추운겨울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들을 바라본 한 봉사자의 글이다.

『대전 동구의 어느 한 교회에서 회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4~5명이 밥, 국, 반찬을 약 100인분을 만들고 있었다.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모르는 나는 열심히 도왔다. 약 6시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전역으로 향했다.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추운겨울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한 줄로 줄을 서서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사분란하게 배식을 하였다. 배식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였다. 식판의 국과 밥 그리고 반찬까지 모두 섞어서 사람 모습이 아니게 먹고 있었다. 주위의 눈치도 안 본다. 멀리가지도 않는다. 같은 하늘아래 어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배식 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도 식판을 수거해서 돌아와 정리까지 했다. 집에 돌아오면서 봉사활동이 아닌 충격적인 경험을 가슴에 담고 돌아갔다.』





이처럼 부랑인이라 불리우며 지내는 그들의 삶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 생활에 안주해버린다. 이들 중 쉼터나 우리 자강의집과 같은 보호시설에 들어와 편안한 안식처와 여러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자강의집에서는 다양한 재활 및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취재/정리_ 자강의집 사회복지사 **송 영 범**



사소한 인연이 소소한 사랑으로...

소중한 만남을 일궈가는 (주) 진합봉사단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것.

계곡, 바다, 산으로 일상 탈출을 하는 것도 여름의 특권이지만 (주)진합(이하 진합)은 우리 온달의집과 아주 특별한 여름을 보내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다.

진합이라 하면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의 부품을 고품질, 고성능으로 만들어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하는데 힘쓰는 아주 고마운 기업이다.

오늘은 진합의 이동렬 차장님을 통해 이분들이 가진 따뜻한 사랑에 동참해 보았다.



Q 온달의 집에서 봉사를 시작하신 시기와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2006년 내부직원과 임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 백년초석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백년초석팀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봉사활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봉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따뜻한 세상 만들기(이하 따세)"라는 다음카페 봉사클럽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봉사처를 찾던 중 대전 시청에서 온달의집을 소개시켜줬고, 직접 방문해 보니 다른 봉사처와 다르게 저희의 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회사와도 가까이 있어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Q 작년 온달의집과 함께 한 고운식물원, 동물원에 나들이를 가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A 원내 활동(공작활동, 운동장 체육활동, 산책 등)과 다르게 야외 활동이다 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체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나를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Q 봉사 중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온달의 집 생활인들과 친해지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A 글쎄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전 날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이 봉사하는 날 일 때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혹시나 술 냄새가 나지 않을까? 애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어렵지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생활인들과 친해지는 별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들과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뒹굴고 같이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솔선수범을 하면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있는데 아직도 앞에 나가는 것이 어색한데, 그 어색함을 버리는 것이 친해지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Q 봉사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제 안사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없었고, 다만 봉사활동 후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은 당연히 매월 넷째 토요일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앞서고 설레입니다.

Q 앞으로의 봉사활동의 계획이 있나요?

A 내년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 집이 농촌인 곳이 있어 온달의집과 연계해서 농촌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감자, 배, 포도 등)
요즘 농촌에 일손이 없어 사람을 사거나 하는데, 체험도 하고 농촌 일손도 도울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온달의 집 생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온달의 집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ㅋㅋㅋ 전 기독교신자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만들었기에 다 소중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한마디 하자면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온달의집 생활인들에게 하고 싶네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취재/정리 온달의집 사회복지사_ **양 정 아**

법인사무국

▣ 창립 52주년 기념식 및 직원 체육대회

6. 15(화), 법인 창립 52주년 기념식 및 직원 체육대회가 법인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 직원표창, 봉사(후원)단체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된 1부 기념행사에 이어 2부 직원 체육대회를 통해 운동장을 뛰고 달리며 전 직원의 단합된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 2010 '백두산 트레킹'

2010 '백두산 트레킹'이 7. 19(월)~7. 23(금) 4박5일 일정으로 민족의 정기와 혼이 살아 숨쉬는 백두산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온달의집

▣ 직원교육 "건강관리 교육"

6. 21(월) 응급처리, 인공호흡 등 생활인들에게 응급 상황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체험학습 프로그램 "피자 만들기"

6. 23(수) 중촌동에 위치한 아이엘 피자체험 학교에서 자신만의 피자를 직접 만들고 시식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강의집

▣ 2010 평강거북이캠프 "여섯번째 이야기"

6. 22(화)~24(목, 2박 3일) 평강의 집 가족들과 중부대, 보건대, (주)한화대전사업장 봉사자들이 함께 평강거북이캠프를 진산자연휴양림으로 다녀왔습니다.



▣ 2010 한화희망어울림 – 희망나눔 스포츠캠프를 다녀왔어요

7. 7(수)~9(금) 평강의집 아동 고은실, 유자영, 김동준 (주)한화대전사업장 봉사자들과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캠프였지만, 뜻깊은 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화원

▣ Active 프로그램 – 수영

7. 8(목)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있는 파도풀장에서 즐거운 물놀이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한 물놀이로 날려버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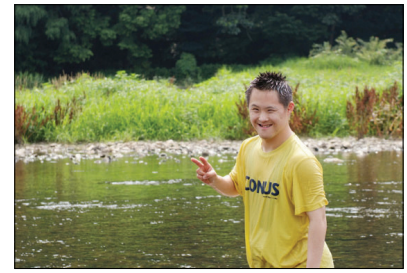
▣ 하계연합캠프 "무한도전! 래프팅"

7. 19(월)~20(화) 래프팅에 도전하기 위해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경호강으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래프팅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 등 잊지 못할 이틀을 보내고 왔답니다.



▣ 방별 단합 프로그램 "한지붕 아홉가족"

7월중, 각 방별로 다채로운 단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최고로 즐거운 물놀이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으로 입맛도 돋구며,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해지는 하루가 되었답니다.



우리집 사는 이야기

다비다의집

▣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7. 6(화)~7(수) 동부소방서(강사:소방교, 이석원)의 출장강의로 이론과 실습을 겸해 실시된 금번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2010 건강검진

7. 16(금) 어르신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체중,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 더위야! 물렀거라.
~~"시원한 화채만들기"

7. 21(수) 어르신들이 직접 화채를 만들어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운 여름, 화채 만들기를 통해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었답니다.



자강의집

▣ 장동휴양림 나들이

6. 10(목)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 생활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계속산에 울려 퍼집니다. 또한 도시락을 준비하여 야외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모두들 흡족해하였습니다.



▣ 남해안 테마여행

7. 7(수)~8(목) 1박2일 동안 남해안으로 테마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낙안읍성을 시작으로 순천만, 보성녹차밭, 오동도, 담양죽녹원, 광한루등 많은 곳을 관광하면서 즐거워하며 이틀간의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 '헬스키퍼 봉사단' 안마봉사

7. 13(화), 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헬스키퍼 안마봉사단' 단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안마봉사 서비스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온 몸 구석구석 스며드는 시원함에 삼복 무더위는 저 멀리 사라지고, 식구들 입가엔 행복한 미소만 가득했답니다.



대전노인병원

▣ 제1회 대전노인병원장기 게이트볼대회

6. 10(목) 송촌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대전노인병원이 후원하고 생활체육 대덕구 게이트연합회 주최한 제1회 대전노인병원장기 게이트볼대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총 16개팀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는 대구 클럽이 우승하였습니다.



대전원명학교

▣ 2010 중부권 지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010 중부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가 대전원명학교 각 경기장에서 6.22(화)~23(수) 열렸습니다.



▣ 2010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6. 25(금) 2010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교내 자원봉사자실에서 대덕경찰서 신완철 경사님 강의로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안내



온달의집

★ 위생안전교육
- 일시 : 8. 31(화)
- 장소 : 온달의집 프로그램실
- 행사내용 : 손씻기의 중요성 및 손씻기 교육 실시.

★ 재난안전교육
- 일시 : 9.10(금), 18(토), 25(토)
- 장소 : 온달의집 프로그램실
- 행사내용 : 지진, 태풍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및 안전 교육 실시.

★ 소방안전교육
- 일시 : 10. 11(월)
- 장소 : 온달의집 프로그램실
- 행사내용 : 화재 시 대피요령 및 화재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

★ 계절체험 프로그램 – '짙어가는 가을 향기 속으로...'
- 일시 : 10. 13(수)
- 장소 : 계룡산 갑사 일원
- 행사내용 :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자 떠나는 가을 나들이.



평강의집

★ 2010 한화희망어울림 8월 – '시원한 여름나기'
- 일시 : 8. 19(목)
- 장소 : 평강의집 1층 강당
- 행사내용 :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프로젝트로 봉사자와 함께 수박화채 만들기.

★ 2010 한화희망어울림 9월 – 한화중부권 행사
- 일시 : 9. 9(목) – 10(금), (예정)
- 장소 : 경기도 이천 일원 & 대천해수욕장
- 행사내용 : 평강의집 아동 11명과 (주)한화대전사업장 봉사자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

정화원

★ 선택활동 "I wanna"
- 일시 : 8. 18(수)
- 장소 : 예술의 전당
- 행사내용 : 격월로 진행되는 선택활동은 프로그램에 생활인을 맞추는 것이 아닌 생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택활동은 국립아이스발레단의 "신데렐라"공연을 관람함.

다비다의집

★ 노인일자리사업본부 흥부와놀부전 공연
- 일시 : 8. 27(금) 10:00
- 장소 : 다비다의집 4층 강당

★ 한가위맞이 송편빚기
- 일시 : 9. 20(월)
- 장소 : 다비다의집4층 강당

★ 3/4분기 생신잔치
- 일시 : 9. 16(목)
- 장소 : 다비다의집4층 강당

자강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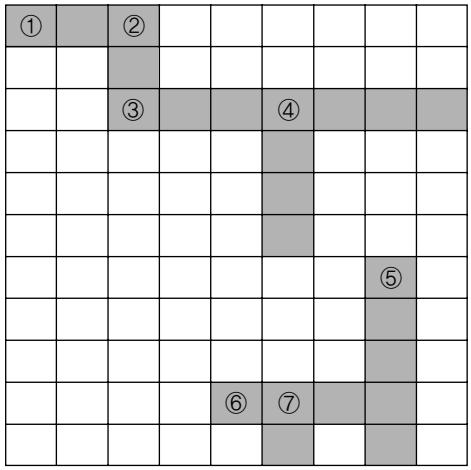
★ 휴양림 나들이
- 일시 : 8월 매주 금요일 10:00
- 장소 : 장동휴양림, 만인산휴양림, 세천공원, 남간정사, 동춘당공원 등
- 내용 : 휴양림에서 휴식을 즐기고 황토길을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며 휴양을 즐기며 도시락을 먹는 즐거움도 함께 한다.

★ 색소폰 공연
- 일시 : 8월중
- 장소 : 5층 프로그램실
- 내용 : 색소폰 공연팀이 생활인들에게 악기도 소개하고 아름다운 색소폰 소리를 들려줌

★ 맛집기행(방별 프로그램)
- 일시 : 7. 28(수) / 8월 둘째 넷째 수요일
- 장소 : 대덕구내 맛집
- 내용 : 접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어보거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알쏭달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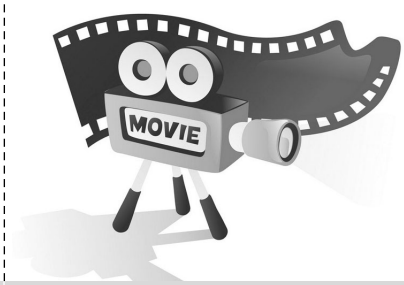




① 산 · 바다 · 계곡의 휴양지나 보양지에서 피서 · 피한하는 것 또는 기간. 휴가의 프랑스어인 이 말은?
②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나라의 이름은?
③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이탈리아영화의 제목은? 힌트 : ○○은 아름○○
④ 쇠고기 뒷사태의 뭉치사태 한가운데에 알을 밴 듯 붙어있는 살덩이 부위의 이름은?
⑤ 지난 소식지 5-6월호에서 '우리집사는이야기' 코너에 소개된 15주년을 맞이한 평강의 집 행사의 제목은?
⑥ 어느 기간에 있어서 어떤 장소, 즉 지점 · 지역 또는 항공로와 같은 어느 경로가 포함되는 기상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⑦ 이미 결혼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는?



[지난호 정답자]
손기환 _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88번지



빛이 사라지면 너에게 갈게
『 렛 미 인 』

＊ 영화로의 만남

감독 : 토마스 알프레드슨 / 출연 : 카레 헤헤브란트, 리나 레안데르손
제작 : 2008년 스웨덴



＊ 책으로의 만남

지은이 : 욘A.린드크비스트 / 옮긴이 : 최세희
펴낸곳 : 문학동네 2009.07.24

더운 공기가 숨을 컥컥 막히게 하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영화는 역시 호러물이 최고다. 그 중에서도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영화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으며 상영과 동시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 뉴문을 거쳐 이클립스까지 화려한 편집과 디지털사운드로 완성도 높은 뱀파이어영화가 올해까지 매니아들의 발길을 묶어 두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공포영화치고 관람후에 끔찍한 살육의 장면만을 얻어 내는 것 말고 남는 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나는 아무리 더위를 없애준다더라도 공포물은 애써 멀리했다.

하지만 「렛미인」은 다르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공포보다 그 안에 더욱 중요한 무엇이 나의 온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가슴의 울림을 느꼈고 그 후로 두고두고 아름다운 충격을 잊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렛미인」의 장르는 호러인 동시에 로맨스이다. 이엘리, 소설에서는 엘리로 나오는 뱀파이어 소녀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외로운 오스칼, 소설에서는 오스카르로 나오는 소년의 우정같은 사랑 혹은 사랑같은 우정을 다루는 이야기이다. 이 책의 재미는 뱀파이어라는 판타지적인 요소보다 오스칼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 있지 않나 싶다. 오스칼이 많은 장르소설에서 보이는 광적이고 비정상적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지독히도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외로운 소년이기에 그러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오스칼이 욘니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에 스파이더맨과 자신을 비교하는 장면이다. 스파이더맨에게는 거미줄의 힘이 있고 오스탈 자신에게는 돼지처럼 짖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수를 써야 한다는....12살 소년 오스칼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렛미인」은 오스칼이 여느 어른 못지않게 영리하고 총명하다는 것을 관객이나 독자로 하여금 이끌어 내게 하고 점점 두 주인공에게 매료되어지게 한다. 핏빛으로 물든 뱀파이어 이엘리의 모습은 섬뜩하면서도 동정과 연민이 일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렛미인」은 지극히 공감적이고 또 느슨해 질 틈새 없이 잘 짜 맞춰져 있는, 소설과 영화가 모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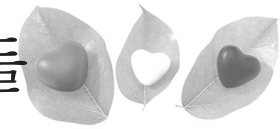


올 해, 미국에서 영화 「렛미인」의 리메이크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렛미인을 어떻게 그려낼지 스웨덴전원의 영상이 온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지금 올 10월에 개봉 될 미국판 렛미인이 기다려지는 건 오스칼과 이엘리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이다.

다비다의집 편집위원_ **설 경 선**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



법인사무국

물품 후원하여 주신 분들

(주)신한카드 – 재래시장 상품권 150매 / 삼성화재배구단 블루팡스&스포츠 토토–캐논카메라1대, 몽골텐트 3동 / 대전상수도사업본부 – It's수 200병 / 충청체신청 – 화장지 24롤입 15봉, 세제 3kg4개입 9개, 페리어치약 3개입 18set 3box, 고무장갑 28개, 치약 3개입*가글세트 30set / 충청체신청장 이상진 – 화장지 24롤입 15봉

온달의집

방문봉사

(주)진합 13명 / 국군간호사관학교 김주아외 20명 / 강민지외 1명 / 강지연 / 강지윤 / 강호민외 1명 / 건양대 민선경외 2명 / 과학고 고종경외 2명 / 곽미화 / 김동현 / 김성보/ 김지연 / 김혜인 / 나종혁외 1명 / 남선중 4명 / 느리울중 정민혁 / 대덕중 전성범외 1명 / 대전고 강호민 / 대전과학고 구영욱 외 3명 / 대전과학고 배예준 / 대전대 로타렉트 11명 / 대전대성고 강대원, 최정례어머니 / 대전시청 생태하천사업단 13명 / 대전여고 강민지, 이소엽 / 둔산여고 정미래 / 둔원고 2명 / 둔원고 임진우외 1명 / 매봉중 황혜진 / 명석고 이병윤 / 문정중 강호준외 17명 / 박명숙 / 박예슬 / 박혜윤 / 법동중 권영준외 3명 / 보광 훼미리마트 30명 / 북일고 나경준 / 서대전고 도선규외 45명 / 선초원 / 송촌고 김혜인외 16명 / 신보미 / 신탄진고 홍수연 / 신탄진중 유니세프 34명 / 신한카드 김윤호외 33명 / 아트라스 BX 5명 / 양수빈외 1명 / 엑스포봉사단 4명 / 열린대전 강소형외 19명 / 영동대 김희진외 3명 / 예술고 박지윤 / 오승애 / 외국어고 박서정외 5명 / 용산고 이주호, 박명숙어머니 / 우리들 봉사단 신만기외 4명 / 우송정보대 유현아외 3명 / 우정사업본부 임종미외 20명 / 유다현외 1명/유하정외 2명 / 이규철 / 이단비외 2명 / 이문고 이숙경외 38명 / 이성희 / 이인월 / 이해경 / 임다은 / 임현희 / 전민중 30명 / 전민고 양서희 / 전민중 양태희외 2명 / 전민중 임태영외 12명 / 전순옥 / 정은송외 1명 / 조정분 / 중리중 강정민외 45명 / 지족고 2명 / 천안북일고나경준 / 최소현 / 한국기술대 박호윤 / 한국폴리텍Ⅳ대학 김학천외 6명 / 한라공조 하상욱외 25명 / 혜천대 사회복지학과 8명 / 호연지 / 황혜진

물품 후원

대덕구 푸드뱅크 692박스 / 대전생태하천사업단 석수 10박스, 바나나 2박스 / (주)보광훼미리마트 알로에음료30개, 포도음료60개, 오렌지음료30개, 과자710봉, 월드컵티셔츠113점 / 진성산업(김문안) 수건100장 / 도미노피자(조영수) 콜라100개, 피자100판 / 신탄진 유니세프 캔커피10개, 과자2박스 / 이성희 요쿠르트 80개, 빵80개, 과자1박스, 피자3판, 바나나3박스, 치킨 2마리 / 성심당 케익16개, 빵3박스 / 엑스포 뚜레쥬르 빵1봉, 케익 3개

금액후원

GS칼텍스(주) / 이현기(중부대학교 교수) / 대전와동초등학교 / (주)진합 / (주)진합 영업팀

평강의집

방문 봉사

공군대학 6명 / 글꽃중 이예준 / 기아자동차 대전중구지점 조경호 / 김상헌가족 4명 / 김연희 / 김정숙 / 김화평 / 김희수 / 늘사랑 침례교회 이민숙외 7명 / 늘사랑교회 8명대성중 오승현 / 대전고 김상헌외 4명 / 대전과학고 박종민 / 대전과학고 손휘재외 1명 / 대전과학고 안세준 / 대전과학고 최상진 / 대전두리중 샤프론 22명 / 대전목상초 학부모회 박미아외 4명 / 대전문지중 '행복한세상' 20명 / 대전보건대 송혜연외 16명 / 대전시설관리공단 김응율 / 대전외고 문영주 / 대전중부장로교회 안치경외 10명 / 동방고 오재은외 1명 / 중일고 홍성남외 15명 / 둔산여고 정은재외 3명 / 류종필외 2명 / 매봉중 박성용 / 매봉중 전현섭 / 목원대 대청레오클럽 12명 / 문정사랑회 유경숙외 5명 / 문정중 산여찬외 4명 / 문지중 조은영외 16명 / 배재대 임소영외 1명 / 법동중 임혜린외 1명 / 베푸미 오승우외 6명 / 삼천모임 유준선외 3명 / 새로남교회 중등부 봉사팀 17명 / 숭실대 오태웅 / 신탄진중 오종순외 8명 / 영동대 심상은외 1명 / 영동대 안희성외 3명 / 영동대 이효원외 3명 / 오정중 샤프론 김정진외 10명 / 옥●희성용문교회 안성민외 7명 / 우송대 송치원 / 우송대 안순기외 3명 / 우송대 이진아외 4명 / 월평중 산미혜외 1명 / 유니세프 지구촌클럽 6명 / 을지대 대전학과 에스뿌아명 / 새로남이복례남이상일 / 이예은외 ●남이호승남이후복 / 전명자 / 전민고 강석경외 15명 / 전민중 정지수외 11명 / 정종용 / 중부대 특수체육교육과 14명 / 청주남중 변형준외 1명 / 충남대 손울림 최재용외 2명 / 충남여고 노지현외 2명 / 충남여고 류윤주외 3명 / 충남여중 박지현외 3명 / 충남여중 윤한나외 1명 / 탄방중 정재호외 1명 / 탄약지원사령부 13명 / 한반중 조동진외 3명 / 한밭중 학부모회 김선회외 8명 / 한빛교회 16명 / 한전전력연구원 10명 / 한화대전사업장 12명 / 함께나누기 김덕금외 1명 / 행복한파랑새 이형주외 4명

이 미용봉사

아름다운사람들 미용학원 6명 / 한밭중 학부모봉사단 4명

물품후원

(주)아모레퍼시픽–다솜선물세트외 16종 34박스, 과자 7박스 / KJ Food–치킨너겟 4봉 / 목상초 학부모회–화장지 20봉, 세제 7개 / 베푸미–케익 1개, 냉면 30인분, 만두 30인분, 수박 1통 / 신탄진중 여우사이–과자 2박스 / 신탄진중 유근창–휴지2봉, 각티슈 1봉 / 오정중 샤프론–수박 2통 / 임헌경–옷 5벌, 종이기저귀 10봉 / 전민고 1학년 3반–배 9봉지, 방울토마토 1상자 / 전민중–종이기저귀 4봉, 물티슈 1봉 / 중일고 홍성찬–종이기저귀 3봉 / 진성산업–수건100장 / 태평양교회–바나나 1박스, 포도 1박스, 양말 60개 / 한국전력연구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0장 / 2010햇빛보기 물품지원–한라공조 바나나외 10종, 한국철도 시설공단 빵800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용창 과자, 시설관리공단 보사모 가래떡외 5종, 대덕푸드뱅크 아이스크림800개, 대성산업가스(주) 헬륨가스 2통, 한국수자원공사 버스지원외 1종, 한국타이어 버스지원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집

금액후원

(주)한화 대전사업장 / SBS슈퍼모델 아름회 / 기아자동차(주) 대전중구지점 조경호 / 기아자동차(주)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치료교육기관 연합회 / 대청종합상사 이창우 / 동양도원퍼니처 박한병 / 문정사랑회 / 늘사랑교회 / 컬럼비아 스포츠웨어코리아 / 공군대학 / 강영자 / 고경일 / 김선삼 / 김수진 / 김원경 / 김정겹 / 김주연 / 김철종 / 김충근 / 김향숙 / 노금석 / 노한호 / 문수진 / 박계현 / 백윤혜 / 병무청 / 손기욱 / 신극삼 / 안태준 / 양인석 / 유근창 / 윤용준 / 이민순 / 이승희 / 이영숙 / 이익형 / 이재락 / 이창주 / 이현기 / 이현주 / 임양수 / 정인선 / 조성일 / 주길자 / 주혜린 / 최선미 / 최은영 / 홍정화

정화원

방문 · 봉사

예지중 · 고(송선영외15명) / 중일고(송은지외15명) / 충대손울림(최재용외2명) / 이문고(천동금외19명) / 대전과학고(신진영외3명) / 아모레퍼시픽(남주연외8명) / 충청체신청우체국(이난희외13명) / 혜천대사복과(김효진외1명) / 계룡산국립공원(조동현외1명)

이 미용 봉사

여우미장(이은하외3명) / 바라바미용실(송명숙외1명)

물품 후원

예지중 · 고-오예스5상box, 요구르트6묶음 / 중일고-떡4box, 음료수4병 / 조성민보호자님-꿀떡1box, 인절미2box / 이정희보호자님-치킨20마리 / 아모레퍼시픽-이동식농구골대2개, 농구공2개, 팀별조끼10벌, 수박5통, 바나나6묶음, 참외4팩, 사과1팩, 아동용품2box / 김성호보호자님-아이스크림60개 / 박현인보호자님-토마토1box / 윤세름보호자님-음료수6병, 마가렛트10상자, 의류1box / 남영우보호자님-수박2통, 드링크1box, 커피1box, 카스타드4묶음, 과자, 요구르트45개 /정혜영보호자님-음료수24개, 과자3봉지

금액 후원

이택근 / (주)레자미종합건설 / 문광철

다비다의집

방문 봉사

색동어머니회 대전시지부(최은희, 백미숙, 이영희, 이종아) / 박경애노래교실 / 손울림 / 대신고 / 헬스키퍼 / 사단법인 얼지키미(미용봉사 : 임민숙, 주신애, 윤해숙) / 미래에셋생명 / 송촌고 / 삼성카드 / 서대전고 / 신한은행 / 보문고(최지성외9명) / 노은고(정하은외3명)

물품 후원

던킨-도너츠1,200개 / 조영애-떡1박스 / 송희관-떡2박스 / 삼성카드-딸기10박스,배3박스 / 조영주-도미노피자23판,콜라23병 / 아모레퍼시픽-선물셋트뷰티컬렉션5호외3가지 292개,에.링클리페어스킨외1개80개 / 무기명-빵200개,요쿠르트240개,에이스4박스 / 이옥배-수박1통 / 장막동-수박1통 / 삼성생명-수박7통 / 원금희-떡2박스 / 김정숙-떡2박스 / 김효일-강대상 마이크대1개 / 이점봉-바나나1박스 / 오종순-수박1통 / 하재용-떡2박스

이 · 미용봉사

대덕구이용사협회, 미용봉사-이상래, 정원용, 박형숙

금액 후원

박승진보호자, 아모레퍼시픽, 이재선

자강의집

방문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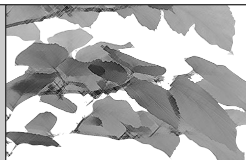
전민고(이유진외 2명) / 아트라스BX(유범근외 2명) / 112웃음연구소 강희분 / 전민고(정윤주외 1명) / 가양중(전소라외 1명) / 비래초 전소정 / 전민고(안효원외 1명) / 중부대(이현수외 5명) / 충남여고(선초원) / 충청체신청 우정사업단 20명 / 우리들미용봉사단 신만기외 3명

물품후원

삼성증권 대전지점-썬캡 28개, 아이스박스30L 2개, 스탠드선풍기 2대 / 대덕구 푸드뱅크-미네랄워터 20상자

금액후원

전혜숙(뱅뱅) / 심기성 / 이선규 / 성옥경 / 이춘화 / 박미영 / 김희중 / (주)성아전력 / 김성구 / 지선진-방문봉사



사랑을 나누어주신 분들

(2010. 05. 01 ~ 06. 30)



【하나은행】
강석진
강선영
강은진
강인영
경규호
고은호
김두완
김수경
김순아
김은아
김은호
김정훈
김진경
김진호
김혜경
김홍준
노승환
노재연
노하림
대전석유(주)
공단주
문복영
민병찬
박광천
박명순
송증녀
양주완
오순욱
오창환
우목단
원옥분
유소진
유원욱
유한킴벌리
이경미
이동원
이민표
이병선
이애리
이영미
이영준
이용인
이원숙
이정숙
이진화
이한나
인동장로교회
장옥영
장은영
전미숙
정현자
정혜정
차승훈
최봉운
최선희
최윤희
한관복
한기두
한 희
허홍무

【지 로】
권남순
조병두
임종미
배용수
유순득
황성환
우창제
시은교회
한정자
박영현
박한병B
정구순
정성호
김운영(대전충청산업)
민병하
동원정육
오동영
임탁형

【농 협】
권오순
권인숙
김경숙
김미숙F
김영희G
김정호B
김창희
김학수
김혜영
김홍견
노은희
문상윤
박가연
배은희
송미해
송상현
송정규
송 혁
안치문
여만구
오세윤
오양순
윤관종
윤지현
이미현B
이수화
이정숙
임경식
장순제
정구연
정소희
조상경
조은용
조은직
주길자
최광식
최인용
최 정
충청주유소
한승규
한영창
홍수경
홍종희
황고은
황정념

【CMS】
(주)미키엔지
니어링
가민자
가영순
강건례
강경래
강경식
강규창
강규희
강기두
강기연
강기종
강나래
강미경
강미정
강민지
강상구
강선화
강영자
강은아
강주일
강지욱
강필경
강효석
강희운
강희정
고경희
고계식
고명수
고영남
고유진
고윤미
고은진
고의진
고자성
고태준
고현석
공병휘
공운식
곽명숙
곽명순
곽병성
곽상호
곽은정
곽종만
곽창식
구민수
구본미
구본익
구본조
구본찬
구승민
구은자
구자흠
구재면
구현미
구혜영
권경수
권남용
권명옥
권미숙
권병률
권상주
권성순
권성준
권오성
권유경
권유진
권재원
권태원
권혜란
권홍순
금강정보
금종화
금찬숙
기설화
길광섭
길상인
길용섭
길은옥
길준수
김가영
김건태
김겸손
김경년
김경수
김경애
김경예
김경옥
김경자
김경주
김경태
김경해
김경희
김계순
김광섭
김광직
김광철
김광환
김규태
김규환
김근훈
김기득
김기복
김기선
김기성
김기숙
김기순
김기영
김기원
김기태
김기형
김기환
김길종
김나영
김남부
김대식
김대영
김대우
김대인
김대전
김덕근
김덕기
김덕수
김덕주
김동수
김동욱
김동윤
김동은
김동주
김동초
김동호
김두루
김만옥
김말희
김명규
김명숙
김명연
김명자
김명화
김무용
김문선
김미경
김미나
김미리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
김민형
김민희
김범수
김병규
김병철
김병호
김보미
김보성
김보연
김봉옥
김비호
김삼수
김상길
김상우
김상화
김석권
김선미
김선영
김선준
김선철
김선희
김설화
김성도
김성식
김성열
김성인
김성주
김성준
김성해
김세준
김세현
김소중
김소진
김수림
김수정
김숙환
김 숙
김순규
김순남
김순희
김승태
김시중
김신옥
김애숙
김애영
김양경
김양미
김양숙
김연례
김연성
김연희
김영규
김영래
김영림
김영미
김영삼
김영석
김영선
김영섭
김영수
김영일
김영주
김영진
김영표
김영호
김영환
김영희
김옥랑
김옥순
김옥원
김옥진
김왕규
김용섭
김용승
김용현
김용환
김용훈
김우년
김우영
김우종
김웅걸
김웅호
김원경
김원희
김윤미
김윤선
김윤정
김은숙
김은애
김은희
김의수
김이재
김익자
김인종
김일환
김재민
김재성
김재영
김재정
김재하
김재현
김재흥
김정기
김정만
김정무
김정미
김정아
김정우
김정임
김정자
김정헌
김정현
김정희
김종규
김종대
김종서
김종순
김종원
김종윤
김종태
김종현
김종호
김주섭
김주현
김주형
김주희
김준영
김중희
김지영
김지원
김지현
김진숙
김진영
김진일
김진태
김진호
김진희
김창곤
김창락
김채희
김충서
김태양
김태현
김태호
김학목
김한영
김해순
김해용
김혁순
김현리
김현숙
김현옥
김현원
김현주
김현준
김현중
김현태
김현호
김현화
김형탁
김혜경
김혜식
김혜진
김 호
김홍규
김홍기
김홍래
김훈정
김희석
김희숙
나기량
나유일
남경백
남궁완
남기종
남동식
남명우
남미숙
남미옥
남성숙
남재용
남정은
남택우
남 해
남현순
남혜정
노경숙
노범식
노수정
노옥례
노은숙
노은하
노재환
노중섭
노지호
노취호
노하종
노현주
대청약품
도범수
도은주
동서환경
라봉주
류근분
류돈경
류수진
류승관
류운선
류재욱
류정현
류종필
류진섭
류하선
류효인
류희호
마인순
마자경
모숙자
모종춘
목승일
문경호
문길순
문남열
문대건
문승일
문정권
문창성
문현주
문화신
민경선
민병숙
민수남
민현조
박건산
박경문
박경호
박관순
박광순
박광옥
박광자
박근석
박근종
박근하
박기성
박나연
박남준
박대서
박덕기
박덕서
박도희
박동수
박문종
박미경A
박민경
박민선
박민호
박배군
박병천B
박복규
박부훈
박상국
박상란
박상용
박상우
박상욱
박상준
박상하
박상현
박상훈
박석규
박선미
박선주
박선호
박성림
박성만
박성수
박성원
박성천
박세광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연
박수영
박수진
박수희
박양근
박양춘
박영미
박영민
박영옥
박영자
박영희
박용균
박용부
박용윤
박용휘
박윤경(박성진)
박윤숙
박윤희
박은경
박은규
박은미
박은정
박은주
박은하
박인숙
박인태
박인호
박재분
박재서
박재순
박전우
박정남
박정미
박정식
박정애
박정운
박정은
박정훈
박종관
박종선
박종숙
박종실
박종옥
박종용
박종한
박종혁
박주노
박주철
박준석
박중근
박지수
박지은
박진수
박찬섭
박찬준
박찬호
박춘선
박춘희
박해상
박해선
박헌오
박현석
박현주
박형순
박홍규
박홍상
박환익
박효동
박희남
방연덕
방인자
방종복
방찬대
방태연
배각규
배규웅
배규인
배규헌
배명찬
배상은
배성무
배순례
배영한
배정향
배준용
배준호
배진태
백기호
백동현
백명순
백성일
백순미
백승부
백승철
백영주
백용규
백운일
백지숙
변경용
변경채
변순주
변양임
변영선
변종옥
변종윤
복진용
서광식
서기분
서남교
서동연
서동우
서명국
서명석
서무송
서수원
서우상
서원직
서유순
서은희
서정숙
서종식
서지원
서진우
서춘화
서현석
석수명
석희로
선광민
설진복
성금숙
성기조
성덕영
성미옥
성열상
성우경
성유선
성유정
성은순
성은제
성주희
성충모
성훈모
소선웅
소윤성
소희영
손란화
손미순
손영금
손영득
손영진
손영희
손은경
손정문
손정미
손정옥B
손종경
손종현
손창균
손판복
손현실
손혜영
송경미
송경신
송광범
송규범
송규현
송낙희
송니나
송복희
송상헌
송석인
송석화
송선옥
송선우
송성영
송연호
송영철
송오섭
송용길
송원중
송 이
송인보
송인양
송재연
송재천
송점호
송정연
송제복
송창섭
송태순
송해경
송해욱
송현섭
송흥섭
수성ENG
신각용
신강남
신동일
신동하
신명경
신서연
신성현
신송근
신승훈
신양호
신연희
신영주
신영철
신영희B
신용수
신유철
신이철
신인섭
신인자
신재욱
신정희
신준수
신지수

천성원식구들의 소식이 담긴 하늘소리소식지가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나 직장내 부서이동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회.042-620-8601)

신진호
신창길
신현숙
신희동
신희상
심규환
심미선
심부용
심상미
심상은
심준보
아쿠아월드
김민백
안미숙B
안미옥
안미진
안용진
안은정
안정님
안진성
안진오
안창숙
안치문
안하영
안해준
안형수
양기주
양미형
양상민
양서희
양순웅
양승미
양영석
양유열
양재호
양재환
양준호
양태희
양해원
양홍섭
양회림
양희열
어금주
엄기표
엄승호
엄환웅
엄효숙
여두만
여원현
여재욱
여준기
연명숙
연무순
염수현
염창렬
염태분
오구환
오국환
오다인
오덕순
오미송
오배환
오소영
오순복
오순일
오승현
오영주
오우근
오우환
오은덕
오은정
오은주
오인교
오일영
오재영
오정옥
오준근
오준석
오태근
오태웅
오한숙
오현숙
오형록
오효석
옥광성
옥지영
옥혜숙
왕정희
용분자
우기창
우종숙
원복기
원복연
원해정
유경자
유경종
유경진
유경희
유계상
유근훈
유기탁
유명종
유미선
유미자
유민자
유범준
유병걸
유병진
유선이
유성현
유성훈
유숙동
유승곤
유아라
유영갑
유영숙
유영식
유용선
유용주
유인석
유장수
유재락
유재칠
유제현
유제호
유평근
유해철
유현봉
유희철
육심미
육장복
육준수
윤경
윤경희
윤관종
윤나연
윤동희
윤미희
윤부덕
윤부현
윤상은
윤상필
윤상호
윤석준
윤성희
윤수영
윤수진
윤수희
윤여상
윤여원
윤영선
윤영숙
윤영희
윤요한
윤은숙
윤이균
윤인식
윤재상
윤정근
윤정남
윤정회
윤조현
윤종득
윤종필
윤주영
윤준한
윤준호
윤지혜
윤진영
윤태선
윤태훈
윤한희
윤현묵
윤현미
윤혜경
윤혜선
윤혜진
이강분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자
이경천
이경현B
이경훈
이경희
이광대
이광연
이광재
이귀호
이규정
이근순
이근한
이금옥
이기택
이나영
이남기
이남순
이다슬
이덕순
이도종
이도화
이동근
이동연
이동용
이동환
이두만
이래옥
이만익
이만희
이말순
이면옥
이명환
이문희
이미경
이미숙
이미순
이민정
이배자
이병주
이상만
이상미
이상민
이상배
이상분
이상실
이상억
이상열
이상예
이상웅
이상원
이상윤
이상일
이상철
이상하
이상학
이상훈
이석규
이석형
이선복
이선상
이선희
이성규
이성만
이성식
이성옥
이성임
이성주
이성철
이성훈
이세영
이소정
이송미
이수근
이수정
이순기
이순남
이순애
이순자
이슬미
이승규
이승룡
이승수
이승식
이승천
이승희
이승희B
이시우
이시택
이안순
이양학
이연선
이연순
이연재
이연주
이연화
이영구
이영근
이영미
이영실
이영욱
이영의
이영준
이영택
이영하
이영훈
이예준
이용기
이용연
이우정
이우혁
이운옥
이운자
이원규
이원세
이윤규
이윤선
이윤종
이은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옥
이은우
이은정
이은종
이은주
이은희
이인구
이인자
이재경
이재구
이재규
이재근
이재명
이재성
이재연
이재열
이재영
이재욱
이재창
이정수
이정숙
이정애
이정현
이정호
이정화
이제원
이종극
이종무
이종연
이종열
이종우
이종원
이종임
이종희
이주견
이주승
이주현
이주호
이준기
이준분
이준석
이지숙
이진혁
이진호
이진희
이창섭
이창우
이천우
이철호
이춘수
이춘자
이태양
이태용
이택호
이평재
이현경
이현기
이현숙
이홍구
이화동
이화선
이환광
이희은
이희정
인선희
인옥희
임경빈
임관수
임규정
임덕환
임문혁
임미라
임미영
임미희
임병국
임상수
임상일
임상철
임성규
임성재
임송은
임양수
임영미
임영숙
임영일
임용철
임윤희
임은정
임은진
임인교
임인숙
임재화
임정남
임정순
임정운
임정이
임종범
임종수
임종자
임종진
임지선
임진영
임춘우
임한원
임현문
임현재
임혜숙
임호정
임황희
임훈희
임희순
장길수
장길진
장대천
장동윤
장미
장미애
장미화
장민자
장삼섭
장성덕
장성열
장승우
장승호
장영남
장영미
장완집
장웅섭
장은희
장종민
장주연
전경진
전두형
전미숙
전범구
전병선
전병한
전병희
전복진
전상배
전상용
전성희
전수혁
전영일
전우철
전유민
전종호
전철구
전태린
전현섭
전혜련
정건
정건우
정경섭
정경택
정경훈
정광모
정광운
정광형
정광호
정구철
정규서
정근영
정길현
정대현
정동석(세종메디칼)
정두옥
정미경
정미라
정미진
정방홍
정병식
정봉교
정상윤
정상천
정상희
정선경
정선우
정성수
정성재
정성환
정세일
정소연
정소희
정수원
정순남
정양훈
정연민
정연원
정연철
정영숙
정용관
정용수
정용훈
정우영
정원규
정윤미
정인옥
정재열
정재영
정재욱
정재호
정정희
정중희
정지영
정지현
정지형
정진관
정진범
정진주
정진효
정창옥
정춘화
정태순
정태영
정하숙
정현민
정현우
정현주
정현준
정혜경
정혜림
정호순
정희숙
조경숙
조경영
조경철
조규선
조남정
조남희
조동건
조동신
조미정
조병설
조병호
조상권
조선아
조성권
조성진
조성춘
조송자
조신형
조여옥
조연희
조영란
조용환
조우영
조윤주
조재수
조재훈
조정순
조지선
조진원
조창희
조현우
조현중
주길자
주성인
주익재
주정희
지현주
진미식품
진은주
진현섭
진형하
차명환
차수현
차은교
차인규
차주왕
채근석
채윤숙
채은아
채정임
천경환
천년수
천원주
최경아
최경환
최경희
최고
최내옥
최면향
최명식
최문자
최민근
최보람
최성락
최수남
최수락
최순녀
최승학
최영순
최영아
최영준
최영호
최완순
최우정
최우진
최유진
최은미
최은숙
최은식
최은영
최은정
최인규
최인재
최재원
최재은
최정래
최종선
최종인
최종환
최준용
최지연
최진호
최춘규
최현B
최혜선
최혜숙
최혜영
최혜정
최화순
최효빈
최흥석
추상명
추성범
추성원
하나메디칼
하나위생공사
하민환
하순화
한광일
한동환
한병선
한상돈
한상순
한상주
한상준
한상필
한아현
한왕수
한윤호
한은주
한은진
한일석
한일수
한재순
한정순
한정훈
한창희
한태성
한향미
한형겸
함병재
함상진
합동
합동전기
허근무
허명숙
허상년
허은주
허충근
현경옥
현기원
현옥순
홍만진
홍명환
홍사오
홍석우
홍수돌
홍수민
홍순태
홍승보
홍승숙
홍완표
홍인화
홍재곤
홍지현
홍진주
홍태화
홍필구
황금례
황노수
황명옥
황명자
황명환
황미선
황선향
황성범
황순태
황연희
황영옥
황용수
황윤신
황윤정
황윤희
황의훈
황인순
황인태
황정민
황주연
황탁연
황태원
황현구
황현주

【직접납입】
경천
관저고등학교
김은진
김이삭
김지현C
대신고등학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대전원명학교
대화중학교
두리중학교
무명
박봉섭
박진솔
복수고등학교
송촌고등학교
신일여고
와동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이문고등학교
이은비
전민중학교
정문출
정창희
정체린
정혜인
조동진
좋은생각어린이집
중일고등학교
천성교회
탄방중학교
태평중학교
평화원

【우체국】
상생설비
이선복

【신한은행】
김석곤
김은수
김철수
성남용
이영식
이중구
조춘도
주광희

【국민은행】
김세열
김해영
신성권
이혜경B
최광훈

【모금함】
대전대덕우체국
빛나라예능
송촌매장
우체국(오정동)
한일병원

【신한카드포인트】
송현미
이태훈

실*천*하*는*사*랑





보성녹차밭에서 자강의 자매들…

친구란?

'내 눈물을 등에 지고 가는 자'란 뜻이다.

– 인디언 속담 중에서 –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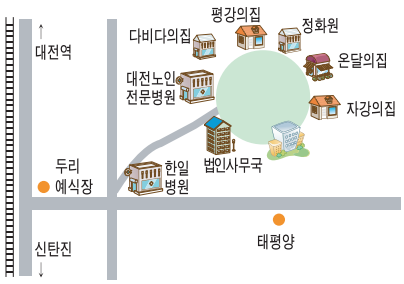
- **계좌간 자동이체 방법**
  신분증, 도장, 통장과 후원회 계좌번호를 적어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CMS(자동이체) 제도 이용**
  금융결제원과 함께하는 자동이체방식으로 금융기관에 가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희 천성원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CMS 업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CMS(자동이체) 제도 이용**
  금융기관에 가셔서 보내드린 지로나 금융기관의 장표를 이용하여 송금 가능합니다.
  (지로번호 : 7522989)

후원하시면

–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소식지(하늘소리)를 보내드립니다.
–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나 후원은 한사람의 일생을 통해 사회봉사의 실적으로 남게 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



후원계좌번호

예금주 : **천성원**

• 하나은행	656-171540-01105
• 농협중앙회	456-01-020228
• 신한은행	100-018-152922
• 국민은행	468-25-0014-981
• 우체국	312249-01-002477
• 은행지로	7522989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www.chunsungwon.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9-1
TEL : 042) 620-8600, 620-8601
FAX : 042) 621-4425

특수교육기관 **[대전원명학교]**
www.wonmyeong.sc.kr
042) 620-8611, 620-8622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온달의 집]**
www.ondalhome.or.kr
042) 620-8900, 620-890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평강의 집]**
www.pghome.or.kr
http://club.cyworld.com/pghome
042) 620-8700, 620-8701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정화원]**
http://club.cyworld.com/junghwawon
042) 620-8800, 620-8801

부랑인복지시설 **[자강의 집]**
www.jagang.or.kr
042) 620-8950, 620-8961

노인요양시설 **[다비다의 집]**
http://club.cyworld.com/davida1004
042) 635-3004, 624-300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비다의집 재가노인복지센터]
042) 635-3004, 624-300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덕요양보호사교육원]
http://cafe.naver.com/daeduckyoyang
042) 620-8888, 635-30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천성보호작업장]**
http://cafe.naver.com/miniser
042) 620-894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해뜨는 집]**
http://club.cyworld.com/risingsunhouse
042) 620-8703

[신탄진한일병원]
www.hanilhospital.co.kr
042) 930-0341

[대전한일병원]
www.hanilhospital.co.kr/dh
042) 620-8114

[대전노인전문병원]
www.silverhospital.net
042) 625-3003